

■ 괴운(槐雲) 칼럼



학문사변(學問思辨)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북악공파 36세)

어느새 3월을 맞아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젊은이들이 교육준비에 바쁘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을 길러주는 교육(教育)과 배워서 익히는 학문(學問)이나 기술을 닦는 공부(工夫)에 관심이 높다.

다. 교육에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유아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논어 학이편(學而篇)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 위정편(爲政篇)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탁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대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즉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여 진리를 찾지 않으면 배운 것이 없애지고(學而不思則罔), 사색만 하고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 위태로워지기 쉽다(學而不思則罔)라고 했다. 이는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체계적인 강의를 듣더라도 사색의 과정을 거쳐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쉽게 잊기 마련이며, 혼자 생각만 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학문체제로 일반화 할 줄을 모른다면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다음 공부하는 방법으로 중용(中庸) 20장에 나오는 학문사변(學問思辨)이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변별하여 완전하게 내 것이 되면 독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이는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실현, 지속가능한 독서법은 헬스 트레이닝과 같이 바른 자세와 방법이 중요하며, 속도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독서, 수준에 맞는 책 읽기(레벨 독서법)와, 연령 수준에 맞는 책 내용을 이해 할 때까지 되풀이 반복해서 읽는(반복독서 활용법) 독서,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독서가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문에 관련된 고사성어도 많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맹모삼천(孟母三遷)'을 비롯하여 전에 배운 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도리를 알아내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독

서하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헤득하여 깨우쳐야 한다는 독서삼도(讀書三到: 眼到, 口到, 心到), 책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讀書百遍 意自見) 등이 있다. 또한 반딧불과 눈(雪)의 반사로 책을 읽었다는데서 고생을 하면서도 꾸준히 학문을 닦는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이 비치는 창과 눈(雪)이 비치는 책상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가운데 학문에 힘쓰는 형창설안(螢窓雪案), 오직 책 읽기만 끝물하는 독서삼매(讀書三昧), 손에서 책을 놓을 사이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불식권(手不釋卷), 분발하여 끼니를 잊고 노력하는 발분망식(發憤忘食), 스스로 힘써 행하여 쉬지 않는 자강불식(自強不息) 등도 있다.

그리고 학문도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한다는 '영과후진(盈科後進)', 독서하기 좋은 세 가지 여건인 겨울, 밤, 비 올 때를 말하는 독서삼여(讀書三餘), 책을 읽음으로써 옛 현인들을 벗으로 삼는다는 독서상우(讀書尙友),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낫다는 청출어남(靑出於藍),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불치하문(不耻下問) 등도 있다.

중국 송나라 성리학의 대가 주희(朱熹)는 '학문이란 하나를 뛰어넘어 바로 이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조금씩 순서를 지켜 쌓아가야 한다(學問無一趨直入文理, 直是積鑽寸累做將去)'라 하였고, 청나라 정치가 좌종단(左宗棠)도 '배움은 마치 물을 거슬러 나가는 배와 같아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學問如逆水行舟 不進則退)'라 하였다. 일본 에도(江戶)시대 유학자 사토 잇사이(佐藤一齋)는 언지록(言志錄)에서 학문은 스스로 힘으로 이해(自得)함이 중요하며, 언지만록(言志晩錄) 60조에서 소년시절 공부는 장년에서 큰일을 할 수 있고(少年學業壯而有爲), 장년의 공부는 늙어서 기력이 쉬워지지 않고(壯而學則老而不衰), 늙어서 공부는 죽은 후에 이름이 썩지 않는다(老而學則死而不朽)라 했다. 최근 동양학 칼럼니스트 조용현 교수는 "공부는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는 것이다."라 했는데 학문의 중요성과 공부 방법은 옛날과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대종회에 건의한다

능동 태사공 묘사시 진설과 의절은 고비나외로 모시면서 축문만 곁여되고 있는바 아드님 남중공의 예에 따라 할머님 성씨가 족보에 입력될때까지는 "할머님도 같이 흥향하소서"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올립니다.

○奉妣位前盤蓋東向立<한관은 할머니의 술잔을 받들고 동쪽을 향해 삽니다>

○執事者西向斟酒于蓋<집사자는 서쪽을 향해 서서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獻官奉之奠于故處<한관은 술잔을 받들어 있던 자리에 올립니다>

○...後略...> 아드님이신 남중공 壇祀는 축문에妣位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維歲次癸巳.....三十三世孫五秀敬昭告于

顯三十三代祖考高麗贈中府君之壇繼始爲祖 濟發洪源 慶流千億 永世可讓 氣序流 易 籍露既降 瞻掃壇壇 來增感愴 謹以 清酌庶羞 祗薦歲事 敬奉

顯00代祖妣 陽川許氏 配食 尙饗 太師公 祝例

維歲次.....幾代孫00敬昭告于 始祖考高麗三韓壁上三重大臣臣父功臣太師府君之墓

天燈南麓 壽封斯崇 功巍德洽 裕裔隆宗 每歲寒食 精禋是恭 陟降如在 於昭盛容 "敬奉始祖妣配食"尙饗

제례위원회에 부의하여 今年 春享을 받들어 있던 자리에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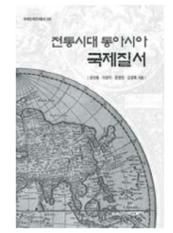
■ 이달의 시

봄바람 난 년들

Table with 2 columns: Poem text and Author/Title. Includes poems like '봄에 피는 꽃년들은', '아랫마을은', '진달래 년 주딩이 좀 보소?' etc.

이달의 책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기준 대신 서구문명 기준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중적으로 붕괴되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교문명권이 그 핵심지 역이었으며, 그 형성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근대 이후 서유럽 열강들의 전 세계적 침략·정복으로 결국 전 세계가 서구문명권에 편입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세계국제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인들의 가치관이나 규범, 제도 나아가 생활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갔으며, 오늘날에는 전통적

Advertisement for '세무법인 확인' (Seomoo Beom-in Hwa-in). Includes contact info for Kwon Hee-chang (010-3680-5057) and a list of services like tax filing, company registration, etc.

Advertisement for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Seoul Mapo Jeongchin-hui Monthly Meeting). Includes date (March 28th), location (Ugichon), and contact info for Chairman Kwon Seung-gu.

Advertisement for '서울산악회 산행 및 시산제 안내 (제293차)' (Seoul Sanak-hui Hiking and Mountain Festival Guide). Includes date (March 17th), location (Seoul Daemaru), and contact info for Chairman Kwon Jong-hun.